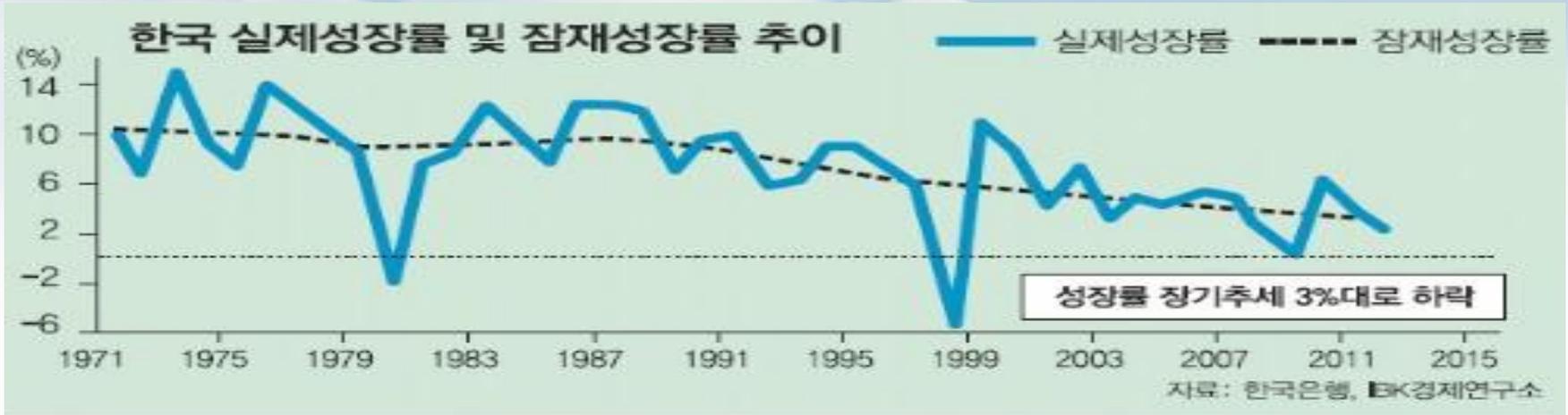


저성장시대의 도전과 대응

김 용 하 (순천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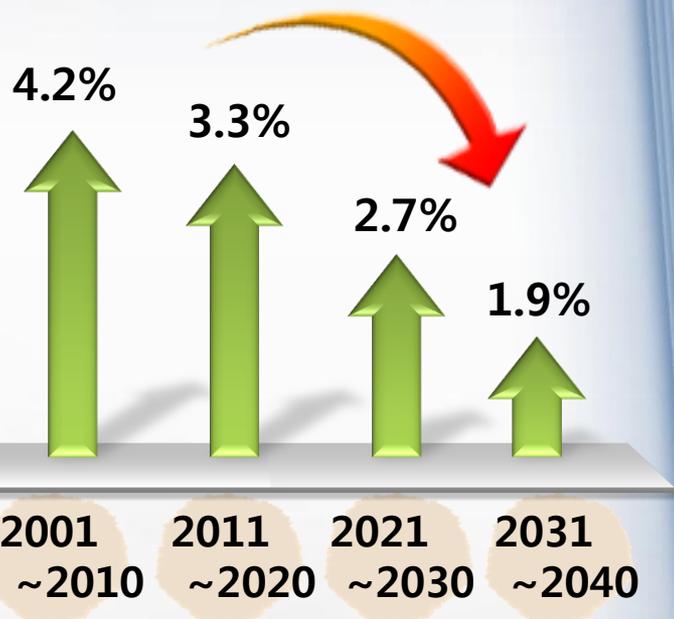
한국 및 세계의 잠재성장률 추이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3%대를 유지
- 일본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지 않은 상태이나, 성장률 지속하락 전망

New Paradigm 필요성

잠재 경제성장률 지속하락



•자료: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2014

새로운 Paradigm의 필요성

-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3%, 2020년대 2.7%, 2030년대 1.9%로 지속 하락 전망
- ▶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전쟁으로 한국의 대외여건은 더욱 악화 →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 ▶ 요소투입형 양적 성장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 성공] 기술주도형 성장세 둔화 + 사회정치 시스템의 지체
- ▶ 물질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생산 및 소비수준 도달 정신적 윤리적 문화적 측면은 선진 국민에 미흡
- ▶ 새로운 패러다임 →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국가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행복관의 정립이 필요

지속성장 제약 인구변수

- 중장기적인 경제성장률 관리는 인구의 관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인구를 주어진 변수로 볼 것이 아니라 통계가능한 변수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세대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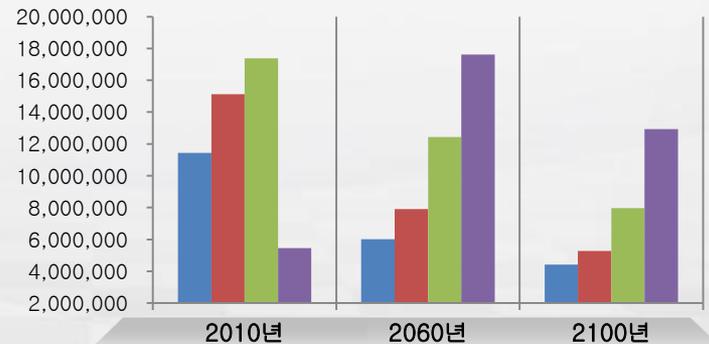


사회보장 재정전망



세대 갈등

■ 0-19세 ■ 20-39세 ■ 40-64세 ■ 65세 이상



인구와 국가경쟁력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률 (2010년, OECD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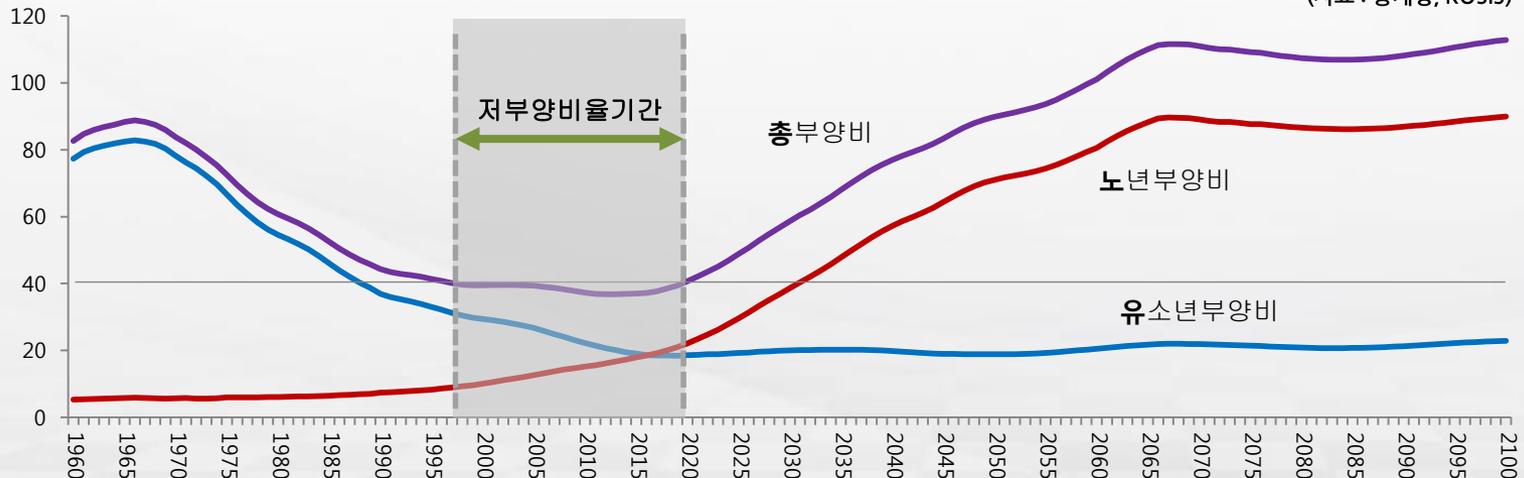
한국 인구문제 재점검

1) 인구부양비율 : 향후 10년간은 인구측면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기간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할 총부양비는 2012년 36.8로 최저점에 도달 ('07~'18년 39미만으로 최저구간)한 후 계속 증가하여 2067년 111.6에 도달 전망
- 2010년을 중심으로 전후 20여년은 부양비율이 최저가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이전기간은 유소년부양비가 높은 기간, 이후기간은 노년부양비가 높은 기간)
- 따라서 저부양비율기간동안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국가적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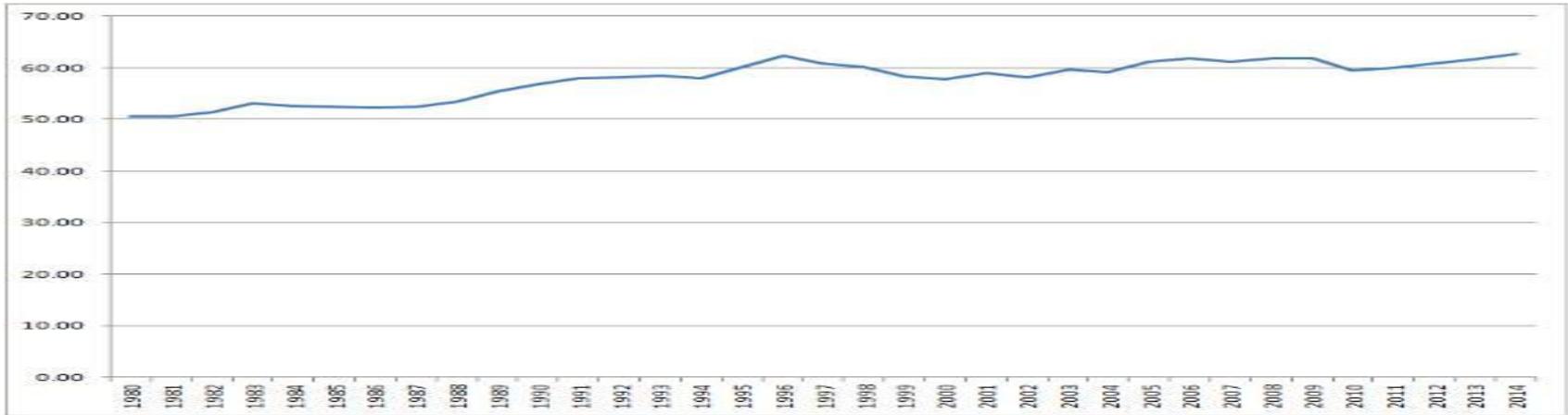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부양비 변화 추이(1960~2100)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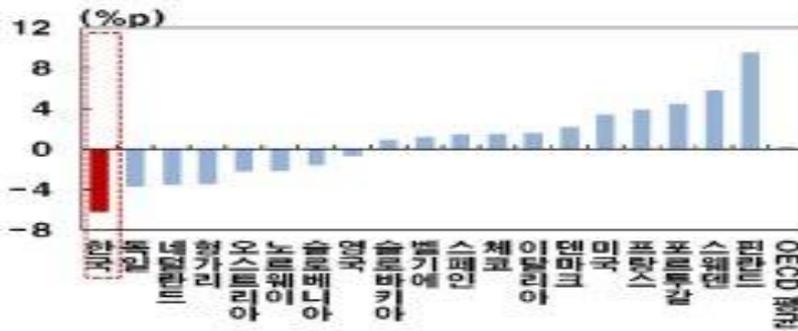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와 가계소득분배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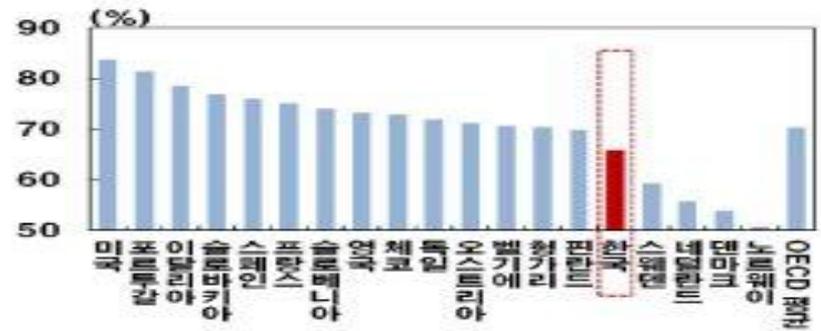


주요국 가계소득분배율

(2000년 대비 2013년)



(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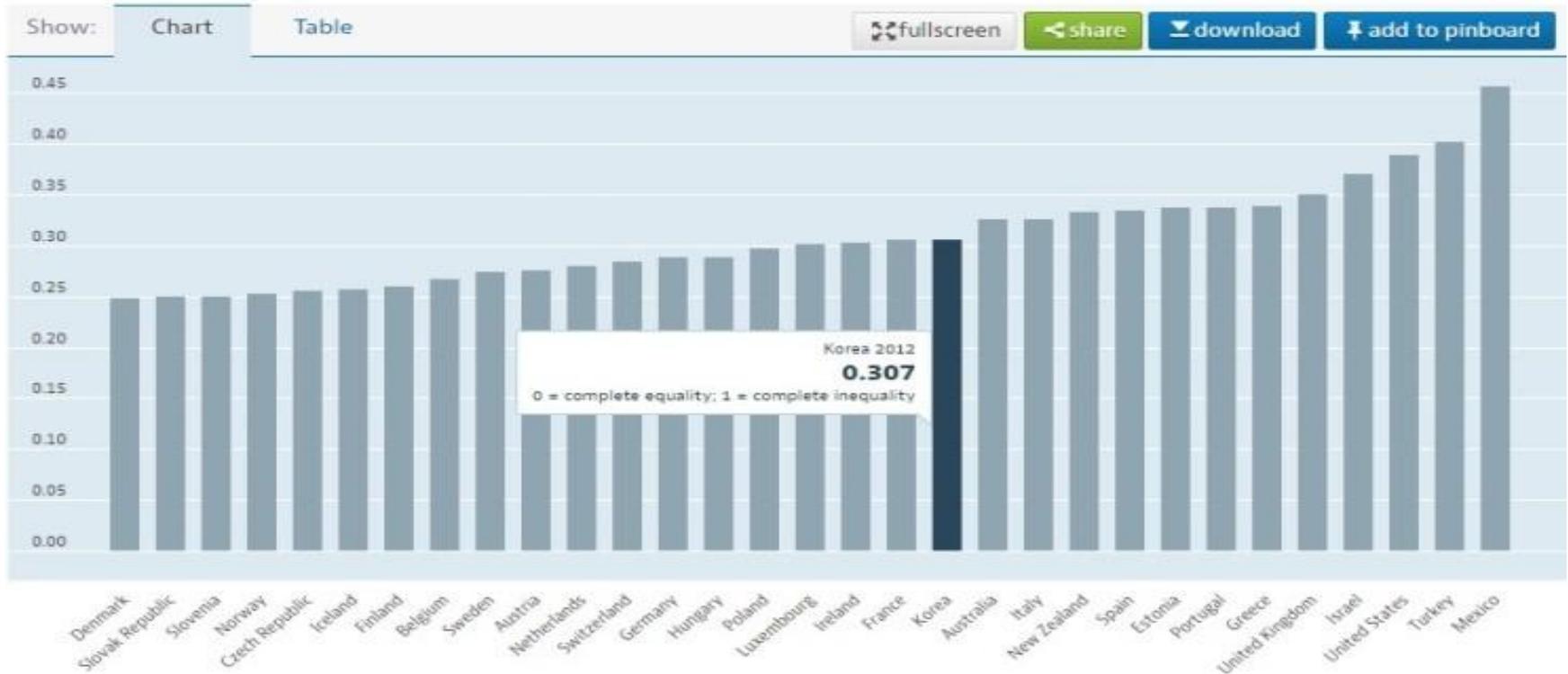


* 가계소득분배율 : 국민처분가능소득(ND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지니계수 국제비교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0 = complete equality; 1 = complete inequality,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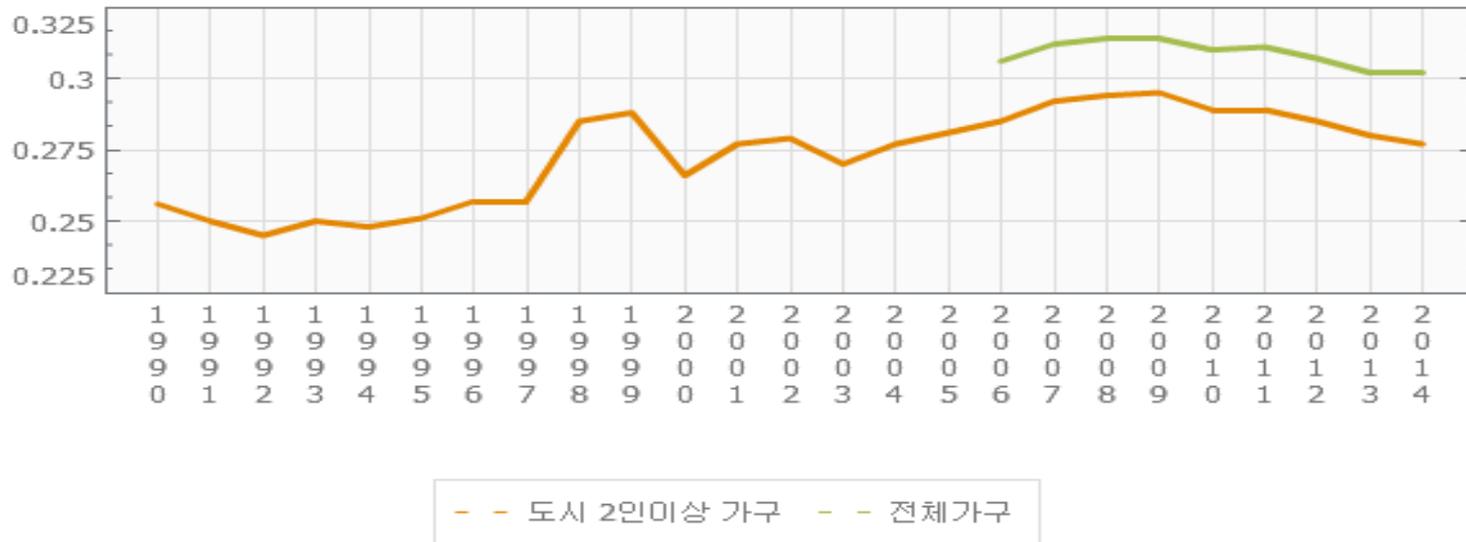
Source: Income distribution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지니계수는 0.307로 비교적 높지 않음.
 이는 한국은 노인인구비율이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임.

지니계수의 연도별 변동추이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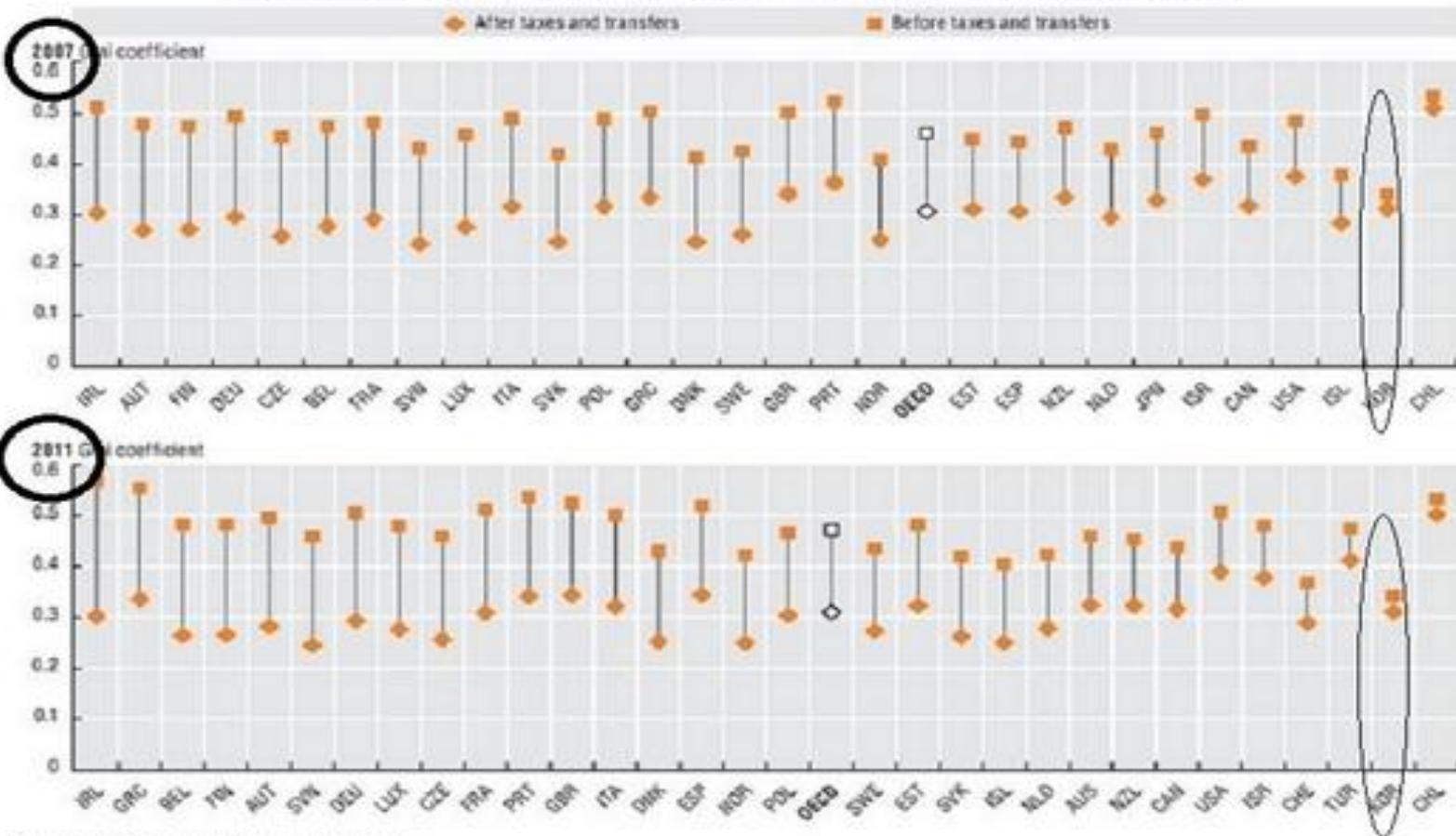


Simon Kuznets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급속히 확대되나,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에 올라서면 소득 불평등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한국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경향이었으나 2009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

조세와 정부이전 전후 불평등도의 변화

11.4. Differences in income inequality pre and post-tax and government transfers



Sourc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49258>

지속성장 저해 '피로사회' 의 발현

DISORDER

- 개인·집단 이기주의
- 근시안적 성과주의
- 경쟁 지상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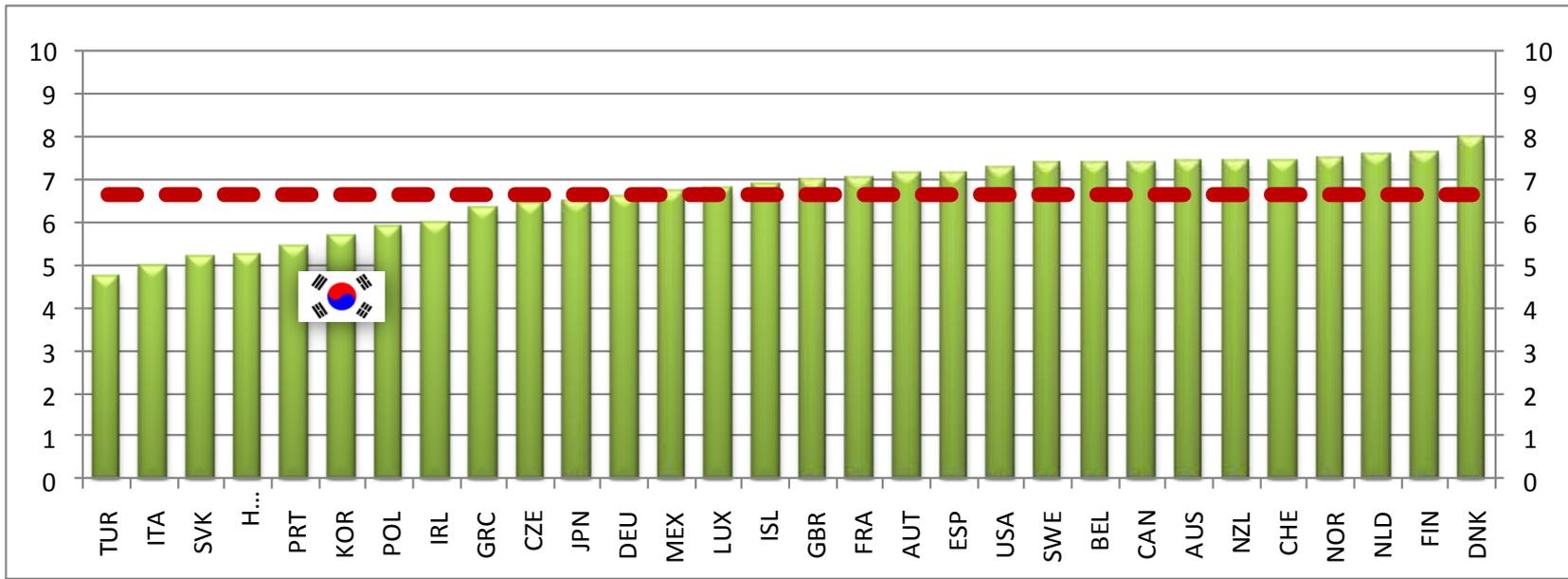
SYNDROME

- 상호불신
- 소모적 갈등
- 부정·부패
- 차별(나와 다른 경우)
- 사회적 배제, 소외
- 불평·불만
- 사회적 불안
- 조급성, 부실

주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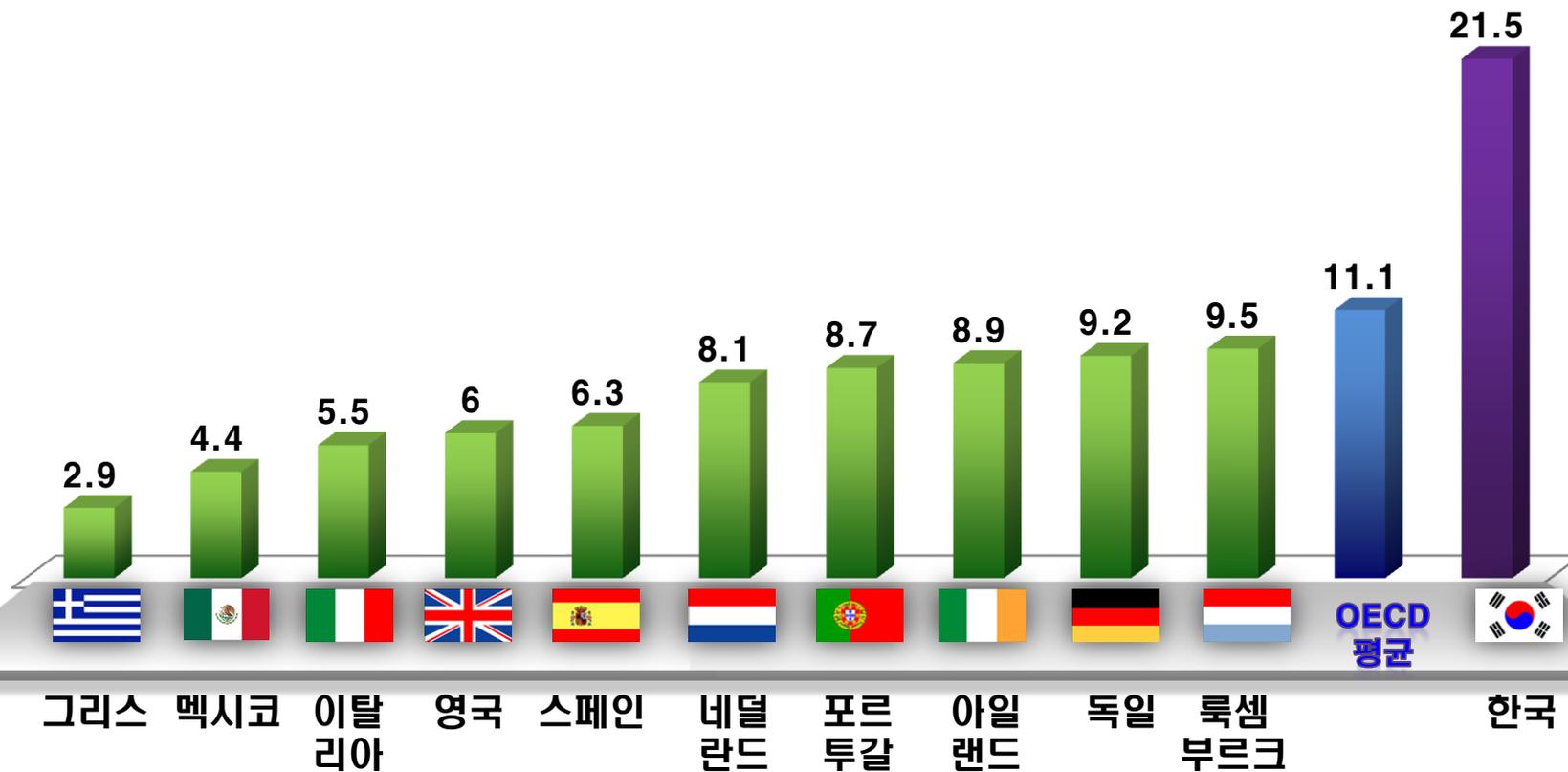
- 경제성장은 달성하였으나 경제·사회적 갈등요소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 저해
- 주관적 생활만족도 수준은 OECD 국가 중 25위



자료: OECD(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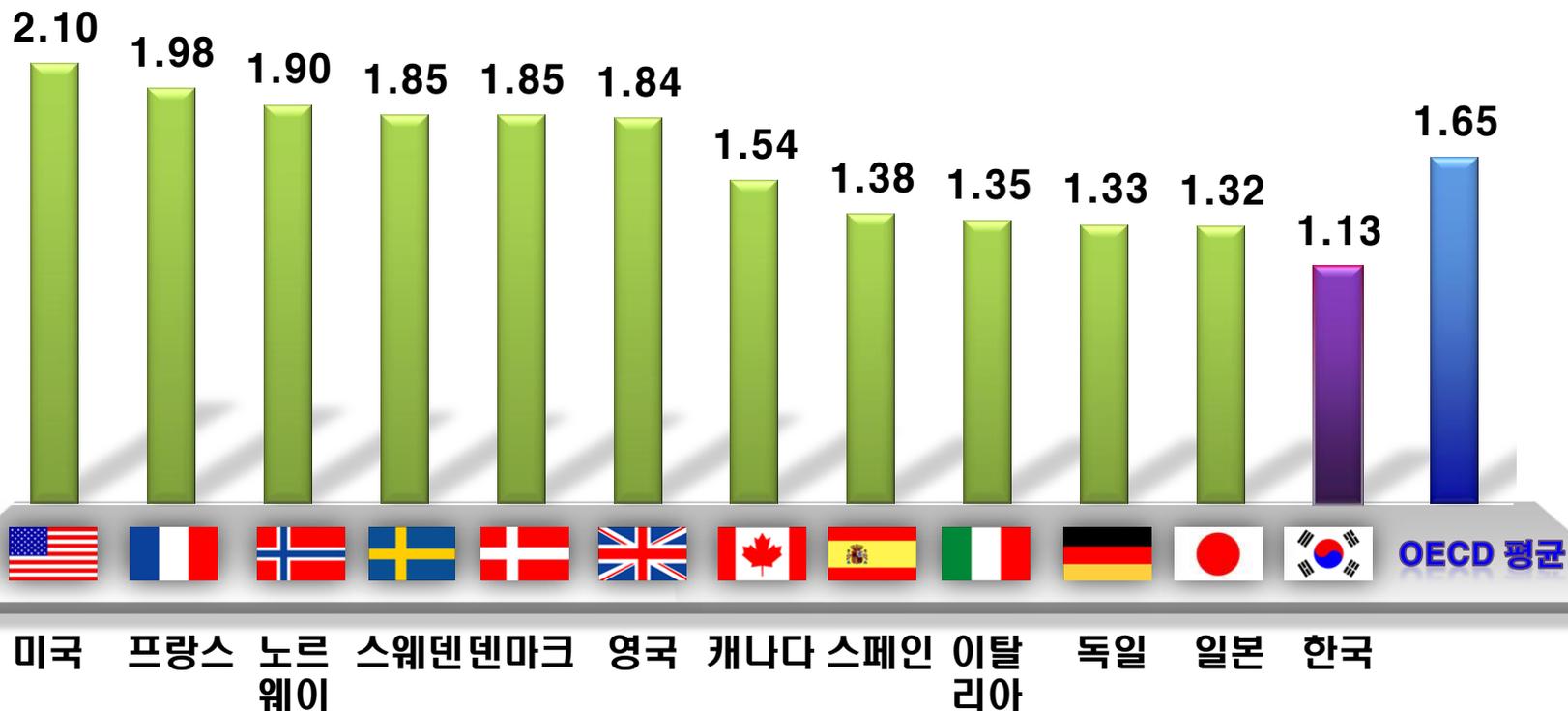
성장 프레임 위기 :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0위)



성장 프레임 위기 :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30위)



자료: OECD Factbook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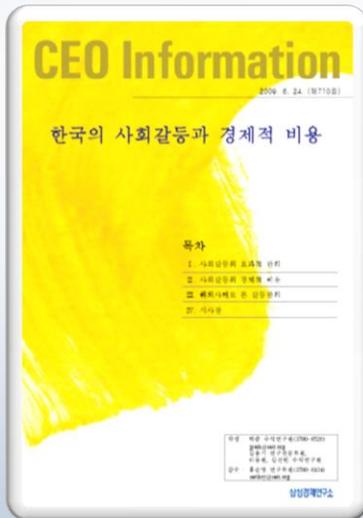
성장 프레임 위기 : 사회갈등 비용



고도 성장의 산물 : 사회갈등

- ①세대 갈등 ②계층 갈등 ③이념 갈등 ④지역 갈등 ⑤남북 갈등 ⑥다문화 가정 문제 등
- 송석구, <<대통합>>, 2015

사회적 갈등으로 300조원의 경제적 비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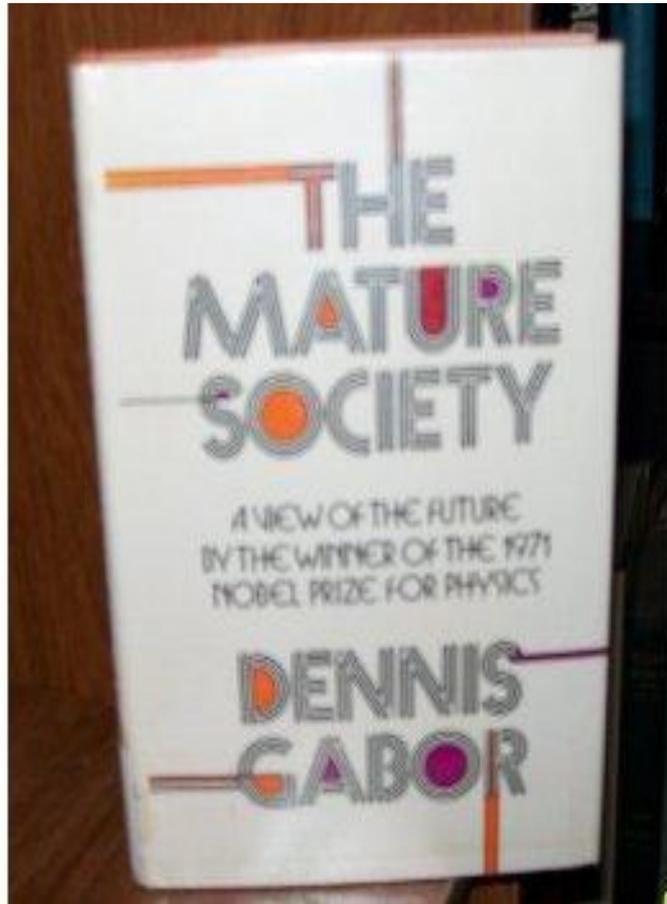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갈등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네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나타남.

- 구조적 갈등요인은 적으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부효과성 지수가 선진국보다 낮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

▶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OECD 평균보다 높은 갈등 수준으로 인해 **1인당 GDP의 27%(약 300조원) 비용 지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Dennis Gabor

성숙사회 (The Mature Society)

- ▶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이나 그에 의존하는 대량소비사회 대신
- ▶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

성숙사회 :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정신 문화 융합 선진화

성숙
사회

도덕
(Morality)

- 청렴결백
- 공공질서
- 공정무사
- 홍익인간

공감
(Sympathy)

- 사회참여
- 노사협력
- 지역통합
- 남북화합

절제
(Moderation)

- 근면절약
- 실사구시
- 경세치용
- 안거낙업

문화
(Culture)

- 자아성찰
- 여유융통
- 문화창달
- 태평성국

상생적 경쟁사회 : 보통 사람 행복 세상

“개천의 미꾸라지(鰍)도 행복한 세상”

60년간의 발전과정에서 ‘개천에서 용(龍) 나오는 정책’ 은 한계

상위 20%가 80%를 점유하는 ‘2:8 법칙’ 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
전방위적,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하는 정글국가로는 선진화 한계
경쟁적 성과주의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의 조화

경쟁지향 계층의 리더십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되, 경쟁상태 유지
경쟁중립 계층은 국가 중추로서 맘과 노력을 요구하되 상응하는 보상
경쟁제한 계층은 국가의 적극적 보호로 인간다운 삶 보장

불확실한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2차적 보장 시스템**
기회의 균등과 기여와 희생에 상응한 공정한 **1차적 배분 시스템**
다양한 갈등 해결 시스템과 함께 발산 에너지를 **융합하는 시스템**

저비용 · 고효율 복지시스템

착한 선진화 복지인프라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 추구하는
상생 시스템 작동

경제·사회 변동에
유연대응하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 구축

질병·장애·노령·재해·
사망 등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보장

사회안전망 체계화

- 맞춤형 복지체계 확립
- 사회보험역할 재정립
- 최저보장-적정 보장 이원화

생애주기 노동 ·보건·복지 통합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 생애주기별 건강보장
- 노동-복지의 연계 통합

고용창출성장 기여복지구축

- 고용우선복지 체계
- 시장기능의 활용 체계
- 사회재의 가치 극대화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 정보화 등의 최대한 활용
- 수요자 중심 통합 관리
- 관리 이전비용의 최소화

가계·기업·사회 ·국가의 공조

- 복지자원의 효과적 확보
- 사회주체간 역할 재정립
- 가족기능지원 사회보장